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29차	일자	2021.07.11. 18:30	장소	온라인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	○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X	○	○	○	○	11

<개회>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
사회과학대학	단위요구안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
약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예술대학	특이사항 없음.
의과대학	불참
인문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릴레이 대자보 현재 게시중. 학생회 사업 만족도 조사 진행중. 사회과학대학과 이스포츠대회 준비 중. 축제진행 방식에 대해서 논의 중.
자연과학대학	불참
통일공대	이번주 금요일 2학기 공학학술제 개선안에 대해서 대학장님 두분과 논의 예정.
동아리연합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서 학관 동방 폐쇄 결정. 2주간 할 예정.

2 보고안건

1. 총학생회장단 보고

2. 중앙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중앙집행위원회
2분기 간담회 결과보고 준비 중
(교육자치) 2학기 학사운영관련 설문조사 결과종합 완료
(연대사업) 외부 제휴사업 진행 중
(전략정책) 1학기 정책이행률 보고 준비 중
(홍보소통) 푸양 여름 콘텐츠 준비 중

산하위원회
(문화) 가을 축기단 모집 완료
(인권복지) 의혈지킴이 진행 중

총: 동아리연합회 부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 총학생회실 그리고 산하위원회실도 2주간 폐쇄 결정 하였다.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은 질의 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질의 있는데 수강신청 30%로 축소했다고 협의 하셨는데 이게 2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 되는건지?

총: 네 맞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총: 관련해서는 총학생회 SNS 계정에 게시될 예정이다. 논의안건으로 넘어가겠다.

4 논의안건

1. 등록금 환불 관련 중운위 자체조사 미회신 관련

- 회신 유예기간 설정과 유예기간 이후 대응 논의

총: 우선 미회신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경유하는 학생지원팀 실무자분의 답변에 의하면 내일 중으로 회신을 주신다고 한다. 네 근데 내일까지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후속 대처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유예기간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내일까지 미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방문을 해서 직접 받아올지? 공백이 길어서 의견 드린다.

경경.정: 경경대 직접 방문이 제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총: 직접 방문을 하되 지금 논의 주제와도 같이 그 전에 일정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2,3일 정도는 재공문을 보내서 그거에 대한 회신을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도 답신이 오지 않으면 직접 방문을 하던지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한다.

경경.정: 경경대 유예 기간을 갖는 것에는 동의하나 목요일까지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금요일에는 회신이 안 오면 직접 방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총: 네 경경대 회장님께서 목요일까지 유예기간으로 하고 목요일까지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직접 방문하여 후속 대처를 하자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다른 대표자분들도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예술.정: 그 직접 방문 한다는 걸 사전에 미리 그쪽에다가 공지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이 없다고 말씀해주시면 된다.

간호.정: 간호대 경경대 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 경경대 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동연.부: 동연도 동의한다.

통공.정: 금요일에 방문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는지?

총: 못 받는다. 항의 방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된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줄 거였으면 줬지 않았을지? 사전에?

통공.정: 주말이면 또 까먹을 것 같아서 경경대 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하루정도 당기는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총: 수요일까지요?

통공.정: 네 그리고 목요일날 찾아 가는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결국에 이제 궁극적으로 그 자료를 받아서 중운위가 회의를 해야 하는데 오늘까지 못 받으면 또 임시회의를 하거나 해야 되니까 좀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인문.정: 인문대학도 공대회장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사실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지도 조금 많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항의방문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과.정: 사과대도 공대 의견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는 조금 해당 내용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내일까지 이 자료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내일까지 안 오게 되면 다시 회신에 대한 유예기간을 줘서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수요일날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내게 될텐데 그럼 그 당일 바로 그 자료를 줘라 이렇게 했을 때 학교 측에서 준비가 가능할지 이 부분이 우려스럽지만 월요일 저희 회의 전까지 자료가 와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총: 그 저번 주에 공문 보낼 때 지난주 목요일을 회신 기한으로 설정을 해서 공문을 발행한 바 있다. 제가 화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학교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을 발행할 때 경유하는 그 부서인 학생지원팀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고 그래서 수요일까지로 하고 수요일까지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목요일에 방문을 하도록 하겠다. 사실 수요일이니 목요일이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빨리 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들 괜찮으신지?

간호.정: 네

총: 네 논의안건 2번으로 넘어가도 되는지? 네 논의안건 2번으로 넘어도록 하겠다.

2. 전학대회 의결산출 관련 논의

총: 제 기억 상 사과대 회장님께서 이 안건을 상정해주신 걸로 기억을 한다.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되겠다.

사과.정: 저번 주에 사실 안건상정의 배경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한차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진행되었던 2분기 총학생회 간담회에서 전학대회 의결산출 과정에서의 문제와 관련해서 학우분께서 발언하신 바를 들었다. 이에 대해서 총학생회장님 답변에서 전학대회 의결산출 과정에서 무효표 계산을 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찬성, 반대, 기권 그리고 무효표의 명수가 실제 투표수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총학생회장단에서 인정을 하셨고 사과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전학대회라는게 대표자들이 모인 의결기구인 만큼 간담회서의 사과보다는 어떤 공식적인 사과문이라든지 아니면 추후 대책에 대

해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바가 아닌가 싶어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총: 네 우선 6월 30일에 진행되었던 2분기 간담회에서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 모든 대표자들께서 저희가 답변한 내용을 숙지하고 회의에 참여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든다. 당시에 저희가 의결산출 과정에 있어서 무효표 산정에 대해서 일부 사과를 한 바가 있고 관련해서는 전학대회 참가 대상의 대표자분들께 관련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겠다라고 저희 총학생회장단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혹시 사과대 회장님께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그 후속대처라는 것이 중운위 차원에서의 후속대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총학생회장단의 후속대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사과: 정: 우선 대처 자체는 총학생회에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학생회 집행부가 어쨌든 투표 그런 집계라든지 실무적인 부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 집행부의 논의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전학대회라는 것 자체가 선출직으로 뽑힌 학년대표, 그리고 각 학과/부 학생회장단, 단과대 학생회장단으로 이루어져서 의결을 진행하는 자리가 전학대회인 만큼 후속조치를 어떤 것을 총학생회 집행부나 총학생회장단이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간담회 답변만으로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었고 이제 의결산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인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서 한차례 더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셨더라도 설명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총: 네 뭐 2분기 간담회 때 답변 드렸던 내용을 근거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초기 표결을 진행할 때 기존 확운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다. 그러나 대표자가 약 400명 이었고 많은 인원의 유효표와 무효표를 산정하는데 과도한 시간이 걸렸다. 약 40분의 시간이 걸렸고 하나의 표결을 진행하는데 40분의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전학대회 중간에 휴게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방법을 다시 재고해보기로 했다. 이후 전학대회 실무 총괄자인 집행위원장이 찬반의 차가 무효표의 차보다 크지 않은 경우 표결상의 찬성, 반대, 기권을 발표하고 무효표의 차보다 찬반의 차가 큰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생각을 하였고 결정을 하였다. 이는 오프라인 전학대회를 가정할 때 한 회의실 내에서 참여자의 찬, 반, 기권의 수를 세고 무효나 기권 등 찬반이 아닌 표결이 찬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해당 결과를 발표함으로 전학대회 당시 방식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전학대회 진행에 가장 근접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결산정 방식을 채택을 하였다. 집행위원장께서 이 사실을 의장단에게 보고를 했고 저희 의장단은 당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으나 의결 결과에 차이가 없는 방식임을 인지하고 해당 방식을 진행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후에 표결 방식은 제가 설명 해 드린 대로 진행이 되었고 우선 이거에 대해서는 최종 의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무효표의 차가 찬반차보다 적어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므로 그 결과의 변동이 없으나 국어국문학과 김홍윤 학우분께서 보낸 경위서에 나와 있는 제 58조 3항에 대한 원항삭제 의결은 변동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제 58조 3항 원항 삭제 의결 이 외에는 무효표 산정과 상관없이 의결 결과가 변동되지 않는 것은 다시 한 번 전학대회 결과를 보면서 확인을 했었고 결론적으로는 무효표를 산출하지 않았으므로 찬성, 반대, 기권의 명수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사실 전체 의결 결과에 영향이 없더라도 일부 대표자 개개인의 의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에 의장단은 표결 방식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대표자분들과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을 2분기 간담회에서 답변한 바가 있다.

부총: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초기에 간담회를 준비했을 때 사전질문을 수집한 적이 있다. 사전질문에서 처음으로 문제제기가 됐었고 저희가 지금까지 내부에서 세네차례 정도 논의를 했고 지금 단과대에도 다 전송이 된 경위서가 송부된 이후에는 모든 표결에 대해서 어제 중으로 전수조사를 다 실시했다. 그래

서 지금까지 확정된 사실관계는 일단 그 표결 방식 같은 경우는 방금 총학생회장님이 설명해주신 대로였고 그다음에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까지는 그 당시에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까지는 의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이후에 추가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을 때 지금 지적을 받는 20번 안건에 대해서는 무효표를 대입을 해서 의결결과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온전치 못했던 것으로까지 파악을 했다. 안건이 회칙 개정 안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회칙개정에 관련된 안건이기 때문에 통과안건에 따르면 2/3이상 찬성을 전제로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 전제를 도입했을 때는 의결결과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다. 그래서 간담회 내용에서 그것이 덧붙여지는 것이다. 그다음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전체 대표자와 학우분들께 이거는 설명을 드릴 문제고 그다음에 저희도 그 당시에 의장단으로써의 귀책이나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 집행부랑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를 해서 입장이 나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

인문.정: 인문대학 질의가 있는데 해도 되는지? 저희도 경위서를 받아서 경위서를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총학생회장님이 당일날 2분기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확인을 했고 경위서 2쪽에 보면 카메라를 끈 사람의 수를 찬성, 반대, 기권에서 각각 빼보고 의결결과의 변화가 없는 경우 투표기능에 기록된 숫자를 그대로 발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사실인지? 저희가 실무진과 통화한 바에 따르면 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린다.

부총: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실무진과 통화한 결과로 나오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효표 총수를 찬반기에서 모두 각 한 번 씩 삭제를 해보고 결과적으로 의결 결과에 변함이 없으면 찬 반 기 결과를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은 저희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과도 동일하고 사실관계에는 맞고 그다음에 경위서에서 지적되고 있는 20번 안건은 모든 안건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초기에 휴게 이후에 진행했던 안건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 것 같다. 그런데 20번 안건 같은 경우는 그 방식을 거치면서 2/3 성립요건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중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20번 안건에는 그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확인을 했다. 나머지 안건은 전수조사를 했을 때는 무효표를 각 수에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적용한 방법에 따르면 찬반 차이나 이런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머지 안건에서의 의결 결과 변화가 없다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 20번 안건은 지금 새롭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

사과.정: 사과대 여쭙보고 싶은 게 방금 내부에서 투표수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줌투표도 전수조사를 하신건지?

총: 네 모든 투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총: 의결을 담당했던 인원이 모여서 당시 표결 내역을 작성을 해놓은게 있어서 그 내용을 전부 비교를 했다. 유효표수, 무효표수, 찬반기권을 전부다 대조를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사과.정: 네 사과대 추가적으로 의견 드리고 싶은 바는 지금 이 사안의 문제는 사실 의결 표 집계 방식에 따라 의결 결과가 변함이 없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사전에 전학대회에서 대표자들에게 설명한 표결집계 방식과 실제 표를 집계한 방식이 상이했고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표자들에게는 이에 대해서 전학대회 현장에서 설명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물론 전학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기존 전학대회 형식을 차용했다라는 총학생회장단의 말씀은 이해가 되나 방금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이 사실 전학대회에서 의결권 행사 전에 모두 설명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총학생회 집행부나 총학생회장단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에 대해서 추후 논의를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글의 형태로 그러니까 사과문등의 형태로 모든 대표자들에게 설명이 되어야하지 않나 싶다. 왜

냐하면 저희가 이제 대의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어쨌든 한 대표자가 행사하는 표에는 그 단과대나 그 학과 부를 대표하는 표이기 때문에 전체 학우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되어야 하는 바가 아닌가 하고 의견 드린다.

총: 네 좋은 의견 감사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표결방식에서 일부 대표자의 개개인 의견이 온전히 반영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사과대 회장님께서 모든 대표자분들이 알아야 되고 모든 학우분들이 알아야하기 때문에 문서화해서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 추후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고 문서화해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다.

사과.정: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의견을 여쭙고 싶은 바가 그러면 뭐라고 하는게 좋을지 상황을 설명해주신 국어국문학과 김홍윤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에 따르면 어떤 특정 조항의 의결에 있어서는 결과가 바뀔수도 있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조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 조치가 될 것인지가 궁금하다.

부총: 그거는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좀 논의를 해봐야하는데 지금 해당 조항이 당시에 처리를 했을 때는 그게 10장에 있는 위원회 조항이었고 그 개정안 원안의 내용들이 전학대회 상에서 변동이 되면서 그러면 그 개정안 원안이 그 전체 내용이 연관이 되어있는 것인데 일부 내용만 변동을 해서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개정안 그 상정한 개정안 자체를 하나씩 삭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개정안 상정 자체를 폐기하는 철회하는 과정에서 표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안건이 전체적인 전학대회 의결 방향성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논의해봐야겠다.

사과.정: 네 답변 감사하다. 이해했다.

총: 네 추가의견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의견 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거의 사과대와 의견이 똑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 저희도 동일하게 전학대회가 중앙대학교 최고 의결기구인만큼 총학생회 측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해주시기 바라는 입장은 사과대랑 동일하고 2학기 전학대회 때는 보다 좀 사전에 표결방식이라든지 표결집계방식이 좀 명확하게 대표자분들께 공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다. 저희는 더 이상 의견은 없다.

총: 네 감사하다. 저도 1학기 온라인 전학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의결을 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2학기 전학대회는 어떻게 진행을 할지 차후에 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사과.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어쨌든 전학대회 라는 아까 인문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표자들 간에 상위 의결기구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총학생회 내부에서 관련 논의가 완료되면 후속조치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사과문 작성이라든지 관련 조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논의 하시고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총: 네 집행부 내에서 추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중운위분들께 사전에 공유, 공지해 드리겠다.

경경.정: 경경대 추가적으로 의견 내고 싶은데 앞선 의견에는 모두 동의하는 바이고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은 전학대회 내에서 의결 방법, 산정 방법이 달라졌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따라서 2학기 전학대회 진행 시에 혹여나 방식이 달라질 경우 해당 내용이 집행부 내에서 논의가 되었다 해도 그 자리에 참석한 대표자분

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총: 네 당시 어떤 대표자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차기 전학대회에서는 대표자분들께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추가 의견 없으시면 논의안건 3번으로 넘어가겠다.

3. 중앙감사위원장 및 중앙감사위원 사퇴

-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제20조 및 제24조 참조

* 첨부자료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및 사퇴서)

총: 지난주 금요일에 사퇴서를 전달받았다. 전달받았고 사실 중운위에 임용권이 있기 때문에 사퇴서 수리건도 중운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 사퇴서를 검토를 하고 사퇴 수리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사퇴서는 공지방에 공유해드렸고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또한 공유해드렸다.

인문.정: 인문대학 질의가 있는데 사퇴수리여부를 중운위 차원에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근데 위원장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도 다 하는 건지? 사실 이전의 사퇴서를 봤을 때는 그러한 논의 과정이 없어서 약간 의문이 들었다.

총: 저희 중운위에게는 위원장의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에 해당하는 말씀이었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총: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사퇴를 한다는데 저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사퇴 수리는 반드시 되어야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제20조에 의거해서 30일 이내로 중앙감사위원장을 재선발하는 것이 회칙 상 적절하다라고 생각한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일단 사퇴 수리는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는데 저희가 말려서 다시 앓힐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퇴 수리에는 인문대학 동의를 한다. 그리고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궁금한 점을 하나 더 질의 드리자면, 어쨌든 위원장의 모집 주체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있는 게 맞는지? 이거 자체도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었다. 그동안 모집을 할 때, 중감위에서 항상 포스터나 이런 거를 다 만들어주고 일정 같은 것을 어느정도 하면 중운위는 그것을 게시하는 정도로만 저는 이해를 했어서 모집 주체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총학생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중운위가 일단 모집 주체인 것이 확인이 되었으니 인문대학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왔냐면, 일단 중앙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일단 첫 번째는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재모집 한다가 첫 번째 선택 방안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감사위원회가 지금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 위치라든지, 업무상에 있어서 학생자치, 그리고 학생사회 간에 큰 혼란과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서 중감위 존재 자체에 대한 논의도 중운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인문대의 생각이다.

부총: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의 부분은 중운위에서 자체적으로 제대로 바꾸거나 할수는 없기 때문에 2학기 전학대회에 결부시켜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일단 위원장 선출은 중감위에 누가 남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중운위 차원에서 30일 내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위원장 선출은 어쨌든 중감위 회칙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 지금 중감위 회칙 상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회기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면 감사 일정 같은 경우에는 회칙이랑 차이가 있더라도 위원장이랑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번외 얘기지만 지금 이렇게 사퇴가 되었는데 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 사실.

총: 그럼 일단 위원장 모집을 해야 한다는 결정된 것이다. 차기 전학대회 때 중감위 존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왜 중감위가 학생자치에 녹아들지 못하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아직 존폐에 대해서 논의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일단 중감위 회칙에 근거해서 위원장을 선발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의 임명권은 중운위에 있기 때문에 재보궐에 대한 그런 업무권도 중운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부총: 저도 총학생회장님과 입장을 같이 한다. 제 개인 의견을 추가하자면, 사실 저도 중감위의 현행이나 중감위 기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나, 중앙감사위원회라는 기구 자체가 학내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존폐를 논하기에는 방금 회장님 말씀대로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 개선책이나 중감위 개혁에 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리를 하자면, 중감위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나, 어쨌든 학내 외부 감사 기능에 대해서 학우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 사견이었다.

총: 네, 그리고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위원장이 재선출이 되던지 안 되던지 하반기 정기 감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차기 전학대회 때 부총님께서 말해주신대로 중감위의 방향성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고 차기 년도 1학기, 상반기 감사부터 재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내보겠다.

통공.정: 공대 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사범.정: 사범대 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경경.정: 경경대 해당 내용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의견 있으신지?

인문.정: 인문대학, 약간 논의가 제가 중감위 폐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는 중운위 차원에서 중감위를 어떻게 하면 현 상황에서 개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라는 취지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어쨌든 중감위 모집을 해서 저희 생각은 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2학기 감사가 현재 상황이라면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일단 위원장 모집을 빨리 해서 위원장과 함께 중앙운영위원회와 중감위 개혁안을 만들고 그거를 전학대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린다.

총: 네, 우선 앞으로의 중앙감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표자와 논의를 해야 될 것인지는 위원장이 선출된 후에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장을 선발을 하자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이해하겠다. 그리고 중운위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게, 30일 이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지 의견이 조금 갈릴 수 있더라고 생각한다. 사퇴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방금 중앙감사위원장의 사퇴서 수리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30일 이내

로 측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운위분들의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부총: 사실 중감위 회칙에 사퇴에 대해서만 나와있지 사퇴의 기준을 언제로 잡느냐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여쭙보는 것이다. 오늘 논의대로 진행을 하면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통공.정: 근데 회칙 상 사퇴서를 중운위가 인정해야 된다, 그런 회칙은 안 보인다.

총: 네 없다.

통공.정: 그럼 그냥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 생각이다.

예술.정: 예술대도 공대회장님 의견에 동의한다.

총: 죄송하다. 제가 간과했던 사실이 있다. 사퇴서에 보면 '2021년 7월 12일부로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럼 오늘이 맞다.

부총: 논의가 끝났다.

총: 네 오늘이 맞다. 죄송하다. 저번 주에 제출하셨으나, 오늘부로 사퇴를 하고 싶다 하셨으니 오늘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럼 저희 총학생회장단이 중앙감사위원장 재보궐과 관련해서 포스터를 제작해오도록 하겠다. 제작을 하고 중운위분들께 공유해드리겠다.

인문.정: 혹시 단과대 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총: 네, 그 위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

부총: 그거는 사실 저희가 중감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중감위원장을 지금 대리선출 하는 것이지 단과대 위원 한 명 한 명까지 중운위에서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 의견은 중운위원장 선임까지만 저희가 하고 이후 절차는 선임된 중운위원장이 맡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총: 사실 선발권 자체는 각 단위에게 있지만, 일정을 조율하는 권한은 중감위원장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은 중앙감사위원장이 선발이 된 후로 할지? 실무적인 권한은 중앙감사위원장에게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앙감사위원회는 중앙감사위원장이 선출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 의견이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4. 재정정보 공개 협의 입장문

- 내용 검토
- 총장실 향의방문 일정 조율 (COVID-19 확산 추이 고려하여 최소 인원 참석)

총: 논의안건 4번으로 넘어가겠다. 재정정보 공개 협의 입장문이다. 중운위 공지방에 가안 올려드렸다. 내용 피드백 있으신 대표자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피드백 없으면 피드백 없다고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인문.정: 인문대학 별도의 피드백 없다.

부총: 다른 단위도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똑같은 내용을 4번을 써가지고 회장님이랑 머리를 싸매서 어떻게 쓰긴 했는데 똑같은 말을 4번 하려니까 저희도 저희가 무슨 말을 썼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사과.정: 사과대 확인했고, 잘 쓰신 것 같다. 저희 단위는 피드백 없다.

통공.정: 공대도 피드백 없다.

사범.정: 사범대도 피드백 없다.

(이하 동일의견)

총: 피드백 없으신 걸로 하고 총장실 항의 방문 일정 조율을 하도록 하겠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해서 최대 4명까지만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 회의 방문 일정을 조율하면 제가 그 일정에 맞게 참석 희망 인원을 조사하도록 하겠다. 언제 방문할지? 너무 설렌다. 빠르면 좋겠죠? 내일 갈까요?

경경.정: 경경대 동의한다.

부총: 내일이요?

총: 내일이 빠듯하면 수요일도 괜찮다.

통공.정: 공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입장문 주신 거 두,세 번 읽어보긴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게시판으로 오늘 12시까지 의견 받으시면 안 되는지?

총: 네 알겠다.

인문.정: 인문대학도 빠르게 가는 건 좋은데 총장님이 있는 날 가야하는 건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

총: 총장님이 계신 날에 가면 좋겠죠? 근데 제가 총장님의 스케줄을 모른다. 그건 공개를 안 해주실 것이다. 근데 제가 내일 중으로 한번 알아는 보겠다. 그에 맞게 그러면 방문 일정을 짜자는 것이죠?

인문.정: 아니요 저희가 고민이 있었던 게, 항의 방문인데 총장님 스케줄을 미리 파악하는 거는 좀 웃긴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문제가 총장님이 없을 때 이 입장문을 전달했을 때 과연 그 입장문을 저희가 제출하고 항의 방문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여쭙본 것이었다.

부총: 제 생각에는 사실 항의 방문이라는 건 이름뿐이고 방문해서 이야기를 할 대상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총학생회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일정을 알아보고 그에 맞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총: 사실 알아보면 총장단에게도 정보가 흘러갈 수 있긴 하다. 그거 고려해서 일정을 말해주시지 않을까? 도망가지 않도록. 그럼 제가 내일 총장님의 스케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럼 내일 알아보고 그 일정을 중운위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저희끼리 일정을 픽스하고 그 일정에 맞게 참석인원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다. 네 사과대 회장님 감사하다.

5 기타안건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기타안건이다. 혹시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 더 있다면 상정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경경대 질의 있다. 총학생회 측에서 축제를 하실 때 대면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변동되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축기단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총: 아직 축기단에서 축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다. 구체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위원장과 잠깐 이야기를 했을 때 우선 전면 온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 추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다.

경경.정: 네 감사하다.

부총: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라인 중점으로 갈 것 같고 기획단 OT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방금 총학생회장님 말씀처럼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걸려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인문.정: 인문대학 기타안건으로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다. 인문대학에서는 이제 인문대학 학생회에서 현재 농활을 추진 중에 있는데 2학기 때 가는, 근데 1학기 때 저희가 총학생회 집행부 보고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연대사업국에서 학과별 마을과 어느 정도 연락을 취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혹시 지금 학과별로 마을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을이랑 연락을 하고 마을에서 허락을 하면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 연락처를 좀 공유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보고 싶다.

총: 해당 내용은 연대사업국장님께 여쭙보고 중운위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부총: 추가로 말씀드리면 1학기 시작하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르겠습니다만, 공대 소속 일부 마을을 제외하고는 마을 명단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부총: 저는 이런 사실을 전달을 받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본의 아니게 단과대를 지칭을 해서 말씀드려 죄송하다.

총: 다른 의견이나 추가 안건 상정하실 대표자분들은 발언해주시기 바란다. 없으신 것으로 알고 중앙운영위원회 29차 회의 폐회하도록 하겠다. 고생 많으셨다.

<폐회>